

한 번도 깨달음 의심하지 않아



갖게 되는 것인데 그것을 모르니 안타까워요. 수행이 쉽지만은 않지만 어렵다고 하지 않으면 세세생생 업을 바꾸지 못하는 것이라.”

한 마음 깨치고 보면 들끓던 욕망과 번뇌와 어려움이 눈 녹듯 사라지고 어디서든 밋볼 수 없는 자유를 누리게 된다. 욕심을 앞세우지 않는, 구하는 바 없이 기도를 하면 마음이 얼마나 편안한지 모르나면서 우선 이러한 기도부터 해 보기를 권했다.

스님은 한 때는 몸이 아주 쇠약하여 선방에서 방부도 잘 받아주지 않을 정도였다. 주변 사람들이 스님의 건강을 염려하여 공부를 만류하기도 했지만, 현산 스님은 ‘선방수좌가 공부하다 죽으면 그것보다 더 큰 복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목숨 내놓고 공부하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건강이 좋아졌다면서 “생사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참선에 다 있음”을 강조했다.

나려면 참선 공부를 부지런히 해야 합니다. 육조 스님께서 ‘어리석은 사람은 복을 닦고 도(道)는 닦지 않으면서 복을 닦는 것이 곧 도(道)라 한다’고 했습니다. 열심히 복을 빌지만 죽을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병과 죽을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합니다. 고깃덩어리에 불과한 육신을 애지중지해도 병과 죽음이 불시에 닥치면 벗어날 길이 없음을 알아야 해요.

부처님은 삼계를 불난 집에 비유했어요. 자신은 잘 살고 있다고 해도 탐진치(貪瞋癡) 오욕번뇌 속에 살고 있으니, 불난 집에 앉아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 번뇌를 끊지 못하는 한 나고 죽음을 면할 수가 없어요. 요즈음 ‘웰다잉’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는데, 평소엔 정진하면서 잘 살았다면 죽는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중정이 됐던 해암 스님의 은사스님은 비록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지만 당신이 언제 가겠다고 말씀하고 해안사 원당암에서 좌탈입방(坐脫立亡)할 정도로 엄청난 수행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동산 스님께서도 깨끗하게 열반하신 것을 보면 선정(禪定)의 힘은 이런 것입니다.”

스님은 ‘참선전도사를 자청하신 것 같다’고 했더니 호탕하게 웃었다. 스님은 화두를 받은 그 순간부터 “나도 깨달을 수 있다”는 확신이 서더라. 평생을 선방 수좌로 살아오면서 한 번도 깨달음에 대해 의심을 해 본 일이 없었다. ‘신심은 모든 공덕의 어머니요 신심이 모든 보배 가운데 제일’이라 했듯이 신심이 장애가 공부 잘 되는데, 요즈음 사람들은 깨달음에 대한 확신이 없음을 안타까워했다.

바로 참선으로 들어가기 어려운 사람은 <금강경>을 반복해서 독경하다보면 화두가 들리게 된다. 또 <보현행원품>을 염송하고 몸으로 행

한다면 그 또한 큰 공부가 되어 깨달음에 이른다 했다.

“애를 쓴다고 금방 되지는 않지만 깨달음 그 자체에는 빠르고 더딘 것이 없어요. 순간에 대오래. 천생만생 선근을 닦아 깨달았건, 깨달음의 당체는 한 겹 같이 똑같습니다.”

동안거 결제를 며칠 앞 둔 터이라 방부를 들인 스님들이 인사차 찾아왔다.

“선등선원의 기운이 어느 선원보다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정진을 하다보면 피곤하고 기운이 쇠해지기도 하는데 여기는 오히려 정진을 하면 할수록 힘이 난다고 그래요.”

아마도 지리산이 뿜어내는 힘찬 기운 탓이 아닐까 싶다.

스님이 우려 낸 차맛은 일품이었다. 차맛이 좋다고 했더니 화엄사에서 직접 채취한 아생차라 했다. 연기 조사가 화엄사를 창건할 때 차씨를 가지고 와서 절 주변과 장죽전에 심은 것이니. 선방 스님들이 차를 애용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눈꺼풀에 무겁게 내려앉는 수마(睡魔)를 쫓아내기 위함도 그 중 한 가지이다. 현산 스님께서 수마를 쫓기 위하여 마신 차는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했다. 100만개를 훨씬 넘긴 그 이면에는 많은 고통과 고난이 있었을 터인데 화두참선을 용광로인양 모든 것을 녹여 낸 스님의 가법적 수행정진을 가늠해 보았다.

날마다 새롭게 맞이하는 날이기에 선정에 들어가는 것도 날마다 새롭다는 스님, 그만큼 하루를 온전하게 치열하게 살아낸다는 의미이다.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싶다면 날마다 새롭게 살아내라’는 스님의 말씀 오롯이 받아들고, 지리산을 향해 큰 숨 한 번 들이 쉬고 내쉬었다.

글·사진=문운정(수필가·본지 논설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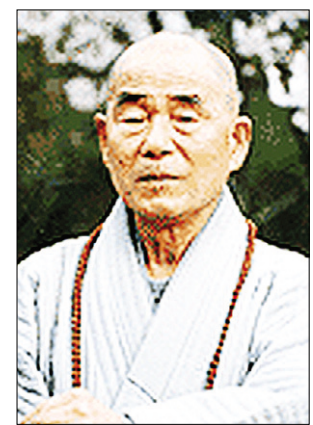
활안 스님의 내가 만난 선지식 禪

74. 춘명 대선사

1950년대 불교분쟁이 생긴 이래 1960년대 불교정화가 확실하게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각 지역마다 특출한 인물들이 있어서 그 지역 불교를 담당하고 있었다. 각 지역의 절들은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예컨대 전라남도 지방에서는 최태종 교장 선생님, 충청도 지방에서는 이재복 교장선생님이 있다 하듯이, 전라북도 지방에는 춘명 스님(사 진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1918년 전북 김제에서 태어난 춘명(1918-2002) 스님은 1927년 송광사에서 연성 스님을 은사로 득도했다. 1943년 전북불교연합회관에서 대교과를 수료한 후 1945년 일본 임제대학을 졸업했다. 1961년 조계종 전북교구 교무국장, 1979년 화엄종 전북 종무원장, 태고종 승정 등을 역임했다. 특히 춘명 스님은 태고종

되도록 길을 인도하였다. 말하자면 태고종 스님으로 계시면서도 상좌를 조계종 강원에 보내 새로운 법사스님을 정하도록 해 그의 앞길에 장애가 없도록 해주었으며, 화엄종 스님들과 함께 전북 불교영산보존회를 구성해 전통 불교의식을 살려 1988년에는 전국민속경연대회에서 대통령상



동주(身和同住)하고 구화무쟁(口和無諍)하며 의화무위(意和無違)하여 같은 견해로 같은 계를 지키며 똑 같이 이익을 나누어 잘 살도록 하라고 강조하셨다.

특히 ‘수륙재연기’와 ‘천후축원문’ 등을 작성해 불교의식을 새롭게 개발코자 한 공적은 널리 칭찬해야 할 점이다. 사실 종교의 생명은 의식에 있다. 전통적인 불교의식을 현대화해 대중 가운데서 살려나간다면 민족 문화에 술도 더불어 살려가면서 우리 불교를 더욱 빛낼 수 있을 것이다.

2002년 5월 19일 전북 김제 원각사에서 세수 84세, 법랍 75세로 입적한 춘명 스님은 열반 3년 전에 <방하착>이란 제목으로 자서전을 펴냈다. 춘명 스님이 이 책을 쓴 1999년에 3년 뒤 입적하실 것이라는 대목이 보이는 것을 보면, 이미 가실 날을 예견한 스님의 안목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5월 21일 춘명 스님의 다비에

종단 초월해 공부시켜... ‘수륙재연기’ 등 작성해 불교의식 개발

승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훌륭한 조계종 스님들을 키워낸 스님 이시다.

1960년대 동국대학교에서 장학생을 뽑는데, 각 지역 사찰에서 추천한 학생들을 골로루 뽑아 장학금을 주었는데, 63년 재단이사가 바뀌면서부터 내 종단사람이 아니면 아니 된다고 하여 생으로... 법사 같이 한 사람들이 많았다. 그러나 춘명 스님은 백학령 노스님으로부터 정정비구 매곡 스님에 이르기까지 지니온 기풍이 있기 때문에 내 종단, 네 종단 사람을 가리지 않고 사 람들을 추천하여 공부하게 하였 고, 전국 사찰을 순회 포교하면서 여러서고 몸매한 불자들을 깨우치는데 심혈을 기울였다.

1987년 전주불교총연합회장에 피선되어서는 불자의 화합에 총력을 기울이되, 이왕에 결혼한 스님들은 가족과 함께 불교를 하고, 독신수행자들은 청정비구가

을 받기도 했다.

국내 불교뿐 아니라 일본, 대만, 중국불교에도 관심을 가져 틈만 있으면 선배, 후배들을 모시고 성지순례에 가서 국내외 불교를 비교할 수 있도록 길을 터 주었고, 큰 절, 작은 절 가릴 없이 무슨 일이 있으면 내 일처럼 살 펴고 공덕을 기렸다.

富興山頂古基庵(부흥산정 옛 절터 앞자)/ 新築寶生瑞氣(새로 지은 보궁에서 서기가 생하니)/ 爲法忘難大功德(법을 위해 몸을 잊은 큰 공덕이라)/ 萬古光明長不滅(만고에 광명이 오랫동안 멸하지 않으리)

옛 절터 산 봉우리에 조그마한 암자를 지은 어떤 스님 절에 가서 위법망구의 정신으로 부종수교(扶宗樹敎)하는 것을 찬탄한 글이다.

스님은 만나는 사람마다 신화

는 100과의 오색사리가 나왔다. 그렇게 스님은 마지막까지 정정 수행을 강조한 무언의 법문을 남기신 것이다.

춘명 스님은 자서전의 제목처럼 자신의 은사인 매곡 스님의 ‘방하착(放下着: 놓아버려라) 하라. 버리려고 하면 살고, 가지려고 하면 죽는다’는 가르침을 평생 실천하며 살았고, 이를 후학들에게 남겼다.

다음은 춘명 스님의 입종계(臨終偈)다.

운산수류거(雲散水流去)하니 적연천지공(寂然天地空)이로다 낙락태허공(廓落太虛空)하니 낙조춘명월(落照春明月)이로다 뜬 구름 같은 이 몸은 흩어지고 파도 같은 번민이 흘러가니 천지는 고요하다. 만상은 모두가 공이니 무변허공에 왕래하던 춘명(春明)의 빛은 사라지도다.

사대성고취(四大成苦聚) 삼계진화택(三界盡火宅) 여아구출물(汝我舊出沒) 집해중난식(劫海終難息) 사대가 고통이 모여 이루어졌으니 삼계가 다 화택이니라. 너와 나 나고 죽음을 계속하기를 겁의 바다가 다하도록 쉬기 어렵구나

“세상은 덧없고 몸통이는 한량없이 덧없어요. 세상이 나오는 것도 고통이고 죽는 것도 고통이고, 병든 것도 고통 아닙니까. 더구나 다치게 되면 몸통이가 온통 고통의 덩어리임을 사무치게 깨닫습니다. 모든 살아있는 생명이라면 언제 죽음과 재앙이 닥칠지 모릅니다. 고(苦)에서 벗어

"승가건강비법 [마·가·목] 신비의 나무"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가목 지팡이를 짚으면 굵은 허리가 펴지고 아이를 못낳는 여인네가 방안에 마가목 가지를 두기만 해도 수태를 한다는 신령한 나무로써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수도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우기 위해 마가목 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받아 진귀한 열매와 약수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달아서 (1달분 60봉 두께 분량) 보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 KBS-2 TV "건강하게 삽시다" (강원도 오대산 승가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방영
-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 KBS-1 TV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나무차 소개)방영

본초강목, 동의보감 기록

첫째,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 등을 다스리고 둘째, 허머리를 감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동풍, 신경통, 관절염, 기관지염, 방광염, 위염, 폐결핵,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 셋째, 중풍, 동맥경화, 고혈압, 풍 에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 (콩팥)을 튼튼하게 하고 피로를 제거하며 간장을 보호하고 보혈, 신기허약, 조갈증, 당뇨와 고지혈증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 든 어혈도 풀어주며 비만 체질 (지방을 분해하여 살이 빠지며)과 성인병 예방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양기를 돋우며 속력을 해소

※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 약품은 아니며 체질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

“실험 사례” 폐 식용유에 마가목 액을 섞었더니 맑게 정제가 됩니다. 즉, 만병의 근원인 혈맥속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충북 청원군 북일면 초정약수 토굴암
전화번호 : 043)214-1280 대진스님

※ 수행선원이나 강원스님께 대중공양하실 불자님 연락바랍니다.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www.yangjikukak.com

1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1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수제화 고무신코 만행화

상표등록 614981호, 디자인등록 0407120호, 발명특허 0554383호

방한용털신

• 가격 : 8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 검정

특무명털신

• 가격 : 120,000원
• 규격 : 215-290mm (5mm단위)

조각무명

• 가격 : 12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 자연색

부츠(여)

• 가격 : 12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 자연색

지압갈창

발명특허원41435
• 가격 : 20,000원

세계절단화

• 가격 : 8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 검정

◆ 동안거 결재중 법공양 올리실 사부대중님의 전화상담 받습니다 ◆